

한-인도 관세당국, 고위급 면담으로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

-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요청 및 양국 간 협력 활성화 기반 강화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화)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Vivek Chaturvedi)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인도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세관직원 초청연수, 제4차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민 국장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책임자	과 장	정수민 (042-481-7970)
		담당자	사무관	손병인 (042-481-7971)